

耽羅의 上古史論攷

金 宗 業

I 序

그 歷史란 過去의 人間들의 生活狀態을 올바르게 文獻을 通하여 究明하고 現在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理解하며 앞으로의 理想을 어떤 方向으로 實現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본다. 濟州島의 庶民도 이런 見地에서 究明 分析해야 한다. 그러나 濟州島에 관한 文獻이란 稀少하여 몇 種類밖에 없으며 또 그것도 第一 오랜 것이 中國人들의 見聞에 依한 記錄에 依해서 分析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王朝實錄등은 우리나라 歷史研究의 根本資料가 되어 있지만 이 資料가 絶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許多한 補助資料를 中心으로 究明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濟州島의 上古史에 대한 文獻이란 高麗末葉 혹은 朝鮮初期의 文獻이 가장 오랜 것으로 나타나 있다.

濟州島의 上古史研究에는 歷史的資料以外에 考古學 言語學 民俗學 人種學 地質學 등 많은 學問的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未備狀態이기 때문에 相當한 어려움이 隨伴된다. 더군다나 濟州島는 섬이기 때문에 韓半島와의 文化的接觸에는 交通上 相當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濟州島는 韓半島 西南海上에 位置하여 있는 絶海의 大島로써 北으로 木浦와의 距離는 88哩 北쪽에 位置한 楸子島와의 距離는 約68哩이고 南北쪽의 釜山 및 日本의 對馬島와의 距離는 約170哩이며 南으로 日本列島의 九州 長崎縣과 對하고 西쪽으로는 東中國海를 건너 南中國의 上海에 對하는 北太平洋上에 孤立한 火山島이다. 섬의 周圍의 길이는 254km요 面積은 1820 km²으로써 巨濟島의 約5倍이고 東西의 길이는 80km 南北의 길이는 40km이다.

以上과 같은 自然環境을 가진 濟州島는 그 原住民의 構成도 複雜多樣하다. 北方大陸으로부터 移住해온 여러 種族과 周邊 여러 島嶼地方으로부터 流移한 種族들로 構成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滿州大陸으로부터 韓半島一帶에 散在되어 있는 舊石器 및 新石器時代의 遺蹟과 遺物 그리고 本島民들의 海上活動에 依하여 近世까지 日本 九州 琉球 中國의 江蘇 浙江地方과 安南 地方에 漂到했던 事實과 他地方 船舶들이 本島에 漂到한 事實로 미루어 볼 때 本島의 原住民의 構成은 混合性이 濃厚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島에 漂着한 以上 各地方出身의 여러 種族들은 外

部와의 交渉이 없는 絶海孤島인 이 섬에서 同一한 條件下의 風土와 生産物의 影響下에 悠久한 時間 같은 自然環境 속에서 生活를 營爲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種族의 固有的인 言語와 慣習이 서로 同化融合하며 血統의 交流되어 特有的 言語와 習俗과 氣質과 性格이 同一한 種族으로 形成되어 本島原住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本島에 上記 原住民들의 언제부터 살았는가 하는 問題는 先史考古學의 究明이 이루어지지 않아 確定지우기는 어려우나 最近에 와서 本島內에서 舊石器時代와 新石器時代의 사람이 만들고 使用한 遺蹟과 遺物이 發見으로 推考할 때 大略 至今으로부터 5000年 乃至 3000年代 以前の 아닌가 생각된다. 文獻上 本島原住民에 對한 記錄은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條末尾에 州胡란 名稱이 나온 것이 始初로 이 州胡人이 本島의 先民社會의 主人公이나 아니냐 하는 問題에 逢着하게 된다. 그러나 故 金泰能은 이 州胡人을 耽羅의 元民으로 假定하고 있는 形便이다.

耽羅元民의 主軸이 州胡人이라 하더라도 時間이 흐름에 따라 周邊國家들의 情勢가 變遷하고 造船과 航海術의 發達됨에 따라 近接해 있는 三南地方과 樂浪郡 等地로부터 流移民들의 繼續流入했을 것이요 衛滿朝鮮 滅亡時 北方民族들도 亡命流入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漢의 四郡 設置以後 韓半島의 商人 및 漢나라의 商人들도 耽羅의 特産物 交易次 本島에 來往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런 來往者들 中에는 耽羅에 永住할 目的으로 流移하여 土着民과 融合하여 一體가 된 것이고 이네들은 原住民보다 優秀한 文化人이기에 州胡人의 社會는 流移民의 文化的 影響을 받아 漸次的으로 向上되어 갔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本島는 그 地表面이나 一部地域의 地層 또는 最近의 深井굴착에서 掘出된 火山堆積物로 推考하건대 火山의 數없이 爆發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漢孛山이 오래도록 活火山으로 持續된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高麗 穆宗5年 西紀1002年과 10年 西紀1007年에 記錄을 보더라도 漢孛山의 爆發이 얼마나 威力을 發揮했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間斷없이 漢孛山의 爆發로 因하여 先民社會의 遺蹟과 遺物이 埋沒되어 오늘날 傳하여 지지 않은 것으로 推則된다. 그러므로 先民들의 生活相을 알 수 없으나 多幸히도 中國側文獻에 州胡人에 對한 簡單한 記錄이 있고 山地築港工事時 溶岩 속에서 中國 漢나라 時代 및 新나라 王莽時代의 貨幣 및 여러 가지 遺物이 나왔으며 山北地方에 支石墓와 立石 그리고 具塚 등의 發見되었으므로 이런 資料를 根據로 삼아 先民社會와 上古時代에 居住했던 人種 및 그들의 生活相에 對하여 推考해 볼 수 밖에 없다.

州胡人의 社會가 漢孛山 爆發에 依하여 큰 打擊을 받아 體制나 秩序가 瓦解된 후 火山爆發의 被害를 避한 殘存勢力 即 高良夫等 三姓의 代表人物의 出現하여 被害復舊를 主管하여 새로운 秩序를 確立하여 繁榮과 發展이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時間이 흐름에 따라 漸次的으로 韓半島를 비롯하여 北方大陸 및 東方倭人들이 來往하였고 南方島嶼民들이 漂到定着하여 北方系와 南方系의 混合形態를 形成한 것이다.

Ⅱ 先史時代의 文化

1. 舊石器時代의 遺物

本島의 火山活動은 第三紀의 末頃 地殼의 變動이 일어나 第四紀에 이르러 噴出하기 始作하였다. 洪積世란 考古學上으로 舊石器時代이다. 至今부터 數十萬年前 이 時期는 一般적으로 氷河時代라 불렸으며 本島도 至今부터 四, 五萬年前까지는 韓半島와 連陸狀態였다. 氷河의 消長에 依하여 海水面의 變動은 100m를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本島는 第四紀를 通하여 大陸과 連陸되었다가 또 孤島로 變化하고 하여 이것이 여러번 反復하여 特殊한 오늘에 本島가 形成된 것이다.

人類가 發生한 것은 第三紀 乃至 第四紀로 推測된다. 第三紀는 哺乳動物時代라 呼稱하거나 人類는 그 다음인 第四紀에 發生한 것이라 하겠다. 地質學上 第四紀의 前期를 洪積世 後期를 沖積世라 하거나 現在는 沖積世이다. 그러던 原始人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本島까지 流移했는가 하는 것은 想像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韓半島에 舊石器時代에 사람이 居住했다는 說은 至今은 定說로 되어 있다. 卽 咸鏡北道 屈浦里 德山이 舊石器時代의 中期 後期の 遺蹟과 忠清南道 公州石壯里이 遺蹟發掘은 約30萬年으로~2萬年에 나타난 先土器文化의 層과 西紀1973年 本島 北郡涯月面 於音里 地境에 있는 빌레못굴에서 6.7萬年前 第四氷河期の 原始人이 새긴 것으로 보여지는 動物의 그림이 있는 石片과 獸骨 그리고 多量의 石器와 住居址가 發見함으로써 韓半島의 舊石器時代의 文化가 北쪽은 咸鏡北道로부터 南쪽은 本島까지 全地域에 分布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特히 빌레못굴에서 發見된 遺物中 注目할 것은 黃熊의 뼈 한마리본과 赤鹿의 化石의 洞窟로부터 出土한 것이다 黃熊뼈는 中國의 周口店에서 北京猿人 化石과 同時에 發掘한 것인데 이번 本島에서 發見 以外에는 世界的으로 稀少한 것으로 氷河時代의 本島는 大陸과 連陸하고 있었다는 地質學者의 意見이 이번에 北部 涯月面 於音里 附近의 빌레못굴에서 나온 出土品에 依하여 確認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一萬年前의 洪積世에 있어서 氷河의 야름이 溶解해서 大洋으로부터 大量의 水量의 吸收되어 海洋이 넓어져서 本島는 大陸으로부터 分離된 것을 科學的으로 立證한 셈이 된다. 黃熊뼈는 約40~50萬年前의 中後期 洪積世代 亞細亞大陸에 棲息한 動物로서 韓半島에서는 一萬年前까지 棲息한 것으로 推定된다.

빌레못굴에서 發見된 黃熊는 後期 氷河期の 海水面이 上昇하기 以前에 大陸으로부터 本島에

건너와 生殖한 것으로 推考되며 黃熊는 勿論 이것과 併出되 化石動物群은 洪積世中期的 火山爆發에 依하여 絶滅된 것이라 하겠다. 本島가 萬若에 連陸되지 않았다면 黃熊이 本島까지 올리가 萬無하다.

빌레못굴을 學術的으로 調査한 金元龍 鄭永和 兩教授는 이 洞窟은 7.8萬年前의 舊石器中期에 原始人의 居住한 穴居 遺蹟址라고 言明하고 있다. 그 證據로서 洞窟의 入口로부터 約1.5km地點에 黃熊의 犬齒 臼齒 顎骨 大腿骨 및 赤鹿의 뼈가 炭化한 木炭이 있고 原始人의 使用한 遺物인 剝片石器和 骨器의 破片을 보건대 原始人의 오랜 歲月이 洞窟속에 살았다는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穴居遺蹟址를 舊石器中期로 보는 것은 溶岩으로부터 나온 骨器和 剝片石器는 中期舊石器時代의 文化인 Mousterian期의 典型的인 樣式과 別差異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獸骨과 石器는 人間의 獸肉을 버겨서 먹고 던진 것이라 하겠고 이것은 本島 原始人의 食事의 殘滓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洞窟은 風雪雨등을 避할 수 있기 때문에 内部의 溫度는 一定하여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原始人들은 洞窟利用이 많았던 것으로 빌레못굴은 本島의 原始人의 舊石器時代의 住居遺蹟址로 보아 異論이 있을 것 같아 以上과 같이 本島에는 舊石器時代 사람의 存在하였다는 것은 大體로 確認할 수 있으나 그런 道具를 使用한 人種에 對하여는 알 길이 없다. 本島의 原始文化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人種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消滅했는지 또 後에 나타난 州胡人과의 關係는 어떤 關係인지 確認하기 어렵다.

現段階 韓國의 舊石器時代의 研究는 近來에 와서 活發하게 展開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發掘의 進捗됨에 따라 中國의 周口店에서 發見된 北京猿人과 같은 化石人類의 뼈가 나올 可態性이 全然 없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2. 新石器時代의 遺蹟

本島의 先事時代의 遺蹟은 初期金屬器 時代까지는 不透明한 點이 많으나 遺蹟墳墓인 支石墓가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居住址와 立石 具塚은 極히 稀少하다. 그리고 學術的 調査를 걸친 것은 몇個所 밖에 없으며 本島의 遺蹟調査班員에 依하여 北部 翰林邑 今陵里 한들窟에서 新石器時代의 것으로 推定되는 無紋土器와 磨製石矢 石鏃等 道具8點 鹿 猪 水禽등의 動物의 뼈와 齒牙를 發見하여 그 報告書에 依하면 出土品은 길이 1.2km의 圓形의 洞窟入口로부터 30m 可量 들어간 地點에 있었으며 그 周圍의 壁은 불에 탄 痕跡이 있어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洞窟의

1) 韓東龜 濟州島 國書刊行會 1975. p. 111~115.

古代原始人들의 居住址로 使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支石墓는 우리나라에는 約4000年前 氏族社會가 崩壞하여 部族社會로 移行할 때 만들어진 墳墓形式의 하나를 말하거나와 支石墓는 先史時代의 文化를 究明하는데 좋은 辭典的役割를 한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支石墓의 分布狀況은 咸鏡南道 平安北道 以南地方에 널리 分布되고 있다 本島에 있어서 支石墓의 存在自體가 史學界에 알려지기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西紀 1959年 7月26日 中央에서 來島한 바 있었던 濟州島綜合學術調查團의 一員인 金哲俊博士가 偶然히도 濟州市 西門밖에서 支石墓 15基를 發見하게 되었고 이에 對한 調查報告를 西紀 1959年 10月 12日에 發表하게 되어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²⁾

本島에 있어서의 支石墓의 分布狀況은 山北地方의 主軸을 이루고 있다. 即 濟州市內 俗稱 먹돌생이 附近에 하나의 支石群으로 數없이 散在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濟州大學 西側을 起點으로 한내를 끼어서 吾羅洞까지 廣範圍하게 分布되어 있다. 露出된 支石墓는 數墓에 지나지 않으나 學皆가 들더미에 自然的으로 묻혀져서 現在까지 現狀 그대로 내려 왔다고 보아야 하겠다. 涯月面 光令里 一帶에 散在되어 있는 支石墓는 學皆가 露出되어 있으며 數基만이 들더미로 숨겨져 있음을 實地調查에서 밝히고 있다.

本島에서 確實한 支石墓의 分布狀況을 列記하면 다음과 같다

- 濟州市龍潭二洞 (俗稱 새정드르)
- 濟州市龍潭二洞 (俗稱 먹돌생이)
- 濟州市吾羅一洞 (俗稱 한내동가름)
- 濟州市吾羅三洞 (俗稱 중쟁이굴)
- 濟州市三陽二洞 (俗稱 들은돌)
- 濟州市外都二洞
- 北濟州郡涯月面光令里
- 北濟州郡涯月面下黃里

以上 8個所에서 都合 55基의 支石墓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 完全한 것이 28基에 不遇하며 蓋石만이 殘存해 있는 것이 19基이고 痕跡만 남아있는 것이 8基이다.³⁾

本島의 支石墓는 板石三, 四枚를 세워 위에 큰 板石을 올려놓은 典型的의 北方式 支石墓와는 달리 韓半島 南部地方에 보이는 巨大한 板狀石 혹은 塊石을 地上에 바쳐 所謂 碁盤式으로 불리는 南方式 支石墓에 屬하고 있다.

2)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 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 382.

3) 前掲書, pp. 383~384.

本島의 支石墓를 發見調査한 金哲俊教授는 여러가지 點을 綜合하여 많은 支石墓中 初期型의 支石墓는 金石併用期 것으로 推定하면서 本島의 支石墓의 形態上으로 보건대 日本의 北九州의 支石墓와 本島의 支石墓와의 사이에는 連結性이 많이 介在되고 있었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다. 元來 北九州의 支石墓와 韓國의 支石墓를 比較해 볼 때 相當히 差異가 있거 때문에 本土의 南方式 혹은 北方式의 形態하고는 相異點이 많으나 韓國本土와 北九州의 사이에 本島의 支石墓를 놓고 推考할 때 北九州 支石墓의 形態의 由來한 理由가 알 수 있을 것이다. 韓國本土의 支石墓가 北九州에 건너가 急激한 變化를 한 것이 아니라 韓國本土의 支石墓가 本島에 들어와 일단 樣式上에 變化를 가진후 그것이 北九州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고 또 三姓說話에 있어서 倭王女三人이 와서 王妃가 되었다고 傳하는 것은 이런 關連에서 나온 것이고 三姓說話는 支石墓 造營者들의 說話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本島의 支石墓는 本島에 新石器時代를 前後하여 人類의 存在를 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本島의 先史時代의 遺蹟으로 立石(선돌)이 있다. 立石의 分布는 韓半島에서는 全羅南道 順天 咸平 黃海道의 延白 江原道의 蔚珍 등에 있다. 本島의 立石은 翰林邑 大林里 俗稱선돌에 있다. 이러한 立石은 金石併用期의 遺蹟으로 太陽巨石文化의 자취이기도 하다 立石은 巨石崇拜의 자취를 말하며 長大한 돌을 세워서 記念物이나 神聖地域의 境界標識으로 하여 韓國뿐만 아니라 舊大陸全般에 걸쳐 分布되고 있다. 本道의 境遇 至今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近來에 와서 支石墓의 存在性이 確認함에 따라 立石의 存在與否 마저도 確認하여야 할 段階에 접어들어 近間에 있었던 實地調査에 依하여 確然히 밝혀진 것이다.

北濟州郡翰林邑 大林里에서 洙源里로 가는 路上東側에 작으마한 丘陵위의 傾斜진척 서있는 岩石이 一見해서 선돌임을 알 수 있다. 그 所在地名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선돌이라고 오랫동안 通稱해 왔고 大林里로 改名되기는 約100年前의 일이었다고 하니 約100年前에는 立石里로 呼稱하였으리라 생각된다. 本島에서 具塚이 分布는 極히 稀少하다.

西紀 1973年 6月 15日 俗稱 빌레못굴의 附近 現況을 現地調査次 나섰다가 日本慶應大學 江坂輝彌教授에 依하여 밝혀낸 郭支具塚은 本島 先史時代의 文化研究에 큰 收獲이라 할 수 있다. 이 具塚에서 多量의 無文厚肉土器의 破片이 地表全面에 널리 깔려 있었고 여러 種類의 破片이며 石類의 破片이 모두가 古代原始人의 遺物이었으니 그 成果는 大端한 것이라 하겠다.

이 具塚의 發掘作業과 科學的 遺物의 分析은 本島의 古代原始人의 生活相을 明確하게 斷定지울 수 있는 資料가 얻어지리라고 믿는다 事實上 郭支具塚의 地表調査에서도 相當한 考古學的 資料를 얻었다. 原始人들의 使用한 器具의 一種인 無文厚肉土器 其他 土器의 破片 漁撈作業時 使用된 것으로 보이는 漁具中 그물용 石錘 磨製石鏃의 破片 石斧의 破片 등 相當한 技巧가

4) 前掲書, pp.403~404.

加해진 石製裝身具 그밖에도 사슴 猪 海肝 물새등의 뼈가 無數히 散在되어 있어 이것이 地表調査에서 나타난 것이고 萬若 發掘作業이 이루어지면 考古學的資料는 엄청나게 出土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⁵⁾

20世紀初에 들어서면서 本島의 古代史研究에 큰 影響을 준 것은 西紀 1928년에 濟州道 山地 築港工事中 東岸老松下 採石場의 石山 속에서 溶岩으로 密閉된 洞窟이 나타나 그 洞窟을 파헤쳐 그 속에서 貨泉의 二個 五銖錢의 四개 大泉이 52 銅鏡이 2個 貨布가 一個 土器 石斧등 一括 遺物이 發見한 것이 알려지고 있다. 그 中 古鏡은 三面으로 되어 있어 一面은 內行花文鏡으로 經7.6cm 緣의 부피는 0.25cm 背丈은 約1cm 緣의 內側에는 斜行櫛齒文帶로 둘러싸 內行十孤文이다. 他의 一面은 二개의 小片으로 되어 있으나 平緣으로 斜行櫛齒文이 있을 따름이다. 貨泉은 모두가 天鳳元年 即前漢末 王莽의 新나라 元年 西紀14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王莽이 沒落後 西紀25년에 再次 五銖錢의 復活한 것으로 貨泉의 鑄錢은 王莽時代 15年間に 限한 것이다. 따라서 이 古錢은 年代決定에 있어서 相當히 精度가 높은 資料라 하겠다. 이런 遺物을 使用한 時代는 벌써 本島는 韓半島의 南部諸族으로 부터 金屬文化의 影響을 相當히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王莽의 貨泉 漢鏡등의 諸遺物의 本島의 流入의 蟻珠의 名産地인 本島와 大陸과의 交易이 盛行을 말하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傳承하는 바에 依하면 安德面大坪里와 表善面表善里의 兩浦口는 唐浦라 하여 옛날 中國과의 交易의 中心港口였다고 한다. 海流關係에 있어서도 兩港은 가장 適當한 곳이며 옛날부터 이 兩港을 通하여 中國과의 交通이 頻繁하게 行하여진 것으로 推測되거나 上記의 山地港 築港時 出土된 一括의 遺物은 樂浪郡 帶方郡을 通하여 流入된 것을 州胡人의 辰韓 馬韓 即 中韓과의 貿易에 依하여 中繼流入된 것으로 推考된다.

本島의 先史時代의 遺物은 石製利器 骨角器 土器 金屬器등이 있다. 土器는 石粒을 뿌려놓은 厚肉無文의 茶褐色 煤黑色 灰色으로 된 粗製土器들이다. 이것들은 學者가 死者埋葬時의 副葬品들이다. 石器는 主로 石斧 石刀 石鏃 石錘 石匙 石棒등으로 되어 있으나 打製石器를 爲始하여 石斧의 破片 有孔單刀 磨製石刀 石器發火器 磨製石斧등의 出土되고 있다. 이것은 初期農耕社會의 生活用工具로 使用한 것이라 하겠다.

厚肉無文土器는 本島뿐만 아니라 北中國 蒙古 滿洲로 부터 韓半道에 流入하여 內陸丘陵을 中心으로 우리나라 民族의 固有한 文化와 融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何加間 土器 및 磨製石器의 出土는 本島의 上古의 歷史에 있어서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本島의 原住民들의 自然經濟로 부터 生産經濟의 轉換을 뜻하는 것이며 그 流入過程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本島民의 祖上에 對한 問題點과의 連結關係에 있는 것이다. 本島에 언제 人類가 來往하기 始作였는가

5) 前掲書, p. 406.

하는 問題는 詳細히 알 길이 없으나 至今까지 發見한 先史時代의 遺蹟과 遺物로 判斷하여 볼 때 大略 新石器時代로 推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또 遺蹟과 遺物의 韓半島에서 出土한 것과 類似한 點으로 보아 本島 原住民의 祖上은 韓半島로 부터 移住하여 온 것이 主要構成分子라 할 수 있다.

■ 本島 原住民의 構成

本島民의 人種의 根幹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問題는 아직 人種學的으로 體系化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人種構成關係를 大略 言及하고 그 連關性을 살필까 한다 오늘날 韓國人은 시베리아 滿洲 蒙古 투르키스탄 등지에 分布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大體로 北蒙古人種 或은 廣義의 通古斯族에 屬한다. 이들의 體質의 特徵은 黃色皮膚短頭 廣顔의 頭部 世界人類中 中等大身의 身長 가늘고 긴 목을 가졌으며 脊柱伸筋群의 發達하여 姿勢가 바른 것 등이다.

言語學的인 面을 살펴보면 韓國語 通古斯語 蒙古語와 같은 語族으로서 알타이 語族에 包含되는데 이중 韓國語 通古斯語 蒙古語를 使用하는 사람들의 相當部分의 北蒙古人種에 屬하고 있다

韓國民의 體質面에서는 北蒙古人種 言語面에서는 알타이 語族에 屬한다고 할때 어느 時期부터 이들의 韓國史의 主人公으로 登場하며 그 以前에는 어떠한 種族이였는가 하는 疑問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韓國史의 考古學的 編年에는 四가지 時代區分이 있다. 卽 舊石器文化時代 新石器文化時代 農耕文化時代 靑銅器文化時代등이다. 따라서 各時代의 文化擔當者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날까지도 連結되는 韓國史의 主人公을 찾는 것이 된다. 各時代의 文化擔當者를 舊石器文化人 櫛文土器人 및 無文土器人으로 大別할 때에 櫛文土器人은 古亞細亞人種 卽 오늘에 시베리아人種이요 無文土器人은 오늘날에 北蒙古人種이다. 그리고 韓國의 舊石器文化가 忠南公州石壯里의 경우 3萬餘年前으로 올라 간다고 했다. 人類學에서 흔히 말하는 古人의 中期 舊石器文化를 擔當하였고 現生人類인 新人이 後期舊石器文化와 그 後인 여러 文化段階를 擔當하였다는 事實에 비추어 보면 咸鏡道 雄基 屈浦里와 公州의 石壯里의 後期舊石器文化의 擔當者는 新人이 었다고 推考해야 할 것이다.

後期舊石器人이 自然環境에 따라 韓半島에서 다른 곳으로 移動해 간 뒤에 相當한 空白期間이 흐르는 동안 韓半島에는 새로운 文化擔當者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現在까지 中期石器時代의 遺物이 發見되지 못한 것이 이를 證明하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櫛文土器의 新石器人은 이

空白期以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韓國의 新石器文化가 櫛文土器文化라는 것은 既定事實이며 그 始作은 BC. 3000年~BC. 2000年이라는 것도 알려진 事實이다. 靑銅器文化가 始作된다고 推測되는 BC. 1000年~BC. 700年에 이르르면 이 櫛文土器文化는 後來의 다른 種族인 無文土器人에 依하여 驅逐되거나 혹은 征服同化된 것이다.

그러면 驅逐된 이들 櫛文土器人들은 어디로 갔으며 征服同化된 이들은 어떤 人種들이었을까이 人種들은 오늘날 大體로 古亞細亞族 혹은 古시베리아族 이라고 하는 시베리아族의 原住民으로 指摘되고 있다. 古시베리아族에는 측지(chukchee) 콜냐크(Kolyak) 길랴크(Cilyaks) 캄차달(Kamchadal) 아이누(Ainu) 에스키모(Eskimo)등의 여러 種族이 있다. 韓國史에 나타난 櫛文土器人의 古亞細亞族이란 理由는 다음과 같은데 있는 것이다. 卽 櫛文土器가 시베리아地方으로 連結되며 韓國史의 櫛文土器가 始作된 B. C. 3000年頃の 東北亞細亞에는 古亞細亞族이 살고 있었다. 또 이때에 두곳의 經濟生活이 主로 漁撈와 狩獵을 中心으로 한 糧食採集段階였다는 것도 한 傍證이 될 것이다.

言語學的인 側面에서 古亞細亞族의 길랴크語가 韓國語와 滿洲語와 連結된다는 事實도 高句麗語彙 가운데 길랴크語와 一致되는 것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魏志東夷傳의 高句麗條에 보이는 東夷의 舊語라는 말이 無文土器段階에서 볼때 前段階의 言語를 指稱한 것 같고 前段階의 言語란 古亞細亞語로 包含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特히 滿洲의 河川名의 通古斯語로는 解明되지 않은 데 이것은 通古斯以前 段階에 先住民이 있어 命名된 것으로 理解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곧 崇拜思想에 依해서이다 現存하는 亞細亞族들에게까지 傳承된 그 傳統은 當時 同一文化圈안에 廣範하게 普及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檀君神話에 나오는 곧 Totem思想 內容이나 魏書 勿吉條에 나타나는 곧 崇拜思想의 이들과 相通하는 點이다 이러한 主張들에 根據해서 東夷列傳 등에서 韓國史와 깊은 關係가 있는 肅慎을 古亞細亞族으로 把握하려는 努力들이 주어지고 있다. 沿海州地方에서 자리잡았던 肅慎族의 櫛文土器使用의 古亞細亞族이라면 韓國의 櫛文土器人은 東北쪽으로는 沿海州 黑龍江地方 오희르크海沿岸 캄차카半島 및 베링海峽으로 連結되는 古亞細亞族임이 더욱 確實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櫛文土器末에 無文土器人의 韓國史의 主人公으로 登場하였다는 것을 省察했다. 無文土器人들은 土器文化面에서 뿐만 아니라 農耕技術을 가졌다는 意味에서도 從來의 櫛文土器文化를 吸收同化하는 底力을 갖고 있었으며 數的으로도 先住民을 壓倒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到來時期는 우리나라의 農耕의 始作의 時期와 맞먹는 것이다. 滿洲와 韓半島의 農耕의 時期를 B. C 2000年乃至B. C 1000年에 잡고 있는 主張에 비추어 본다면 無文土器들의 到來도 이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華北의 龍山文化와 通하는 農耕文化를 가졌던 無文土器人들은 그후 靑銅器文化 및 銼器文化를 이룩하면서 韓國史의 主人公으로 登場하였던 것이며 이들은 體質上으로는 北蒙古人種 言語學상으로

는 알타이語族에 屬한다. 無文土器人을 北蒙古人種이라 할 때 우리는 許多한 說話와 民俗 등에 있어서 北方系的인 要素 即 天神族·天神乃至 太陽崇拜 巫覡信仰과 거기에 따른 祭儀와 習俗 등이 있음을 指摘하고 싶은 것이다.

이들 無文土器人들을 文獻과 關聯시켜 볼 때 어떻게 理解해야 하는가는 問題이다 中國의 光秦文獻에 자주 나오는 東夷에 關한 것이다. 中國側이 보았던 東夷는 淮河以北의 沿岸一帶 即 至 今의 江蘇 安徽一部를 包含하여 山東 河北省을 거처 渤海灣을 끼고 遼河 滿洲地域에 걸쳐 살았던 異民族의 總稱인 것이다. 金庠基博士의 研究에 依하면 東夷族은 中國西北地域으로부터 한 갈래는 滿洲東南部와 韓半島 다른 한 갈래는 河北山東半島 方面으로 移動하였는데 山東方面의 東夷는 殷나라때부터 漢族과 끊임없는 接觸과 鬭爭을 벌였고 周나라 때에 와서는 淮河流域까지 퍼져 큰 聯合勢力을 이루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博物志에 나타나는 徐偃王의 傳說이 이를 立證한다 그리고 秦나라가 統一 됨에 이들은 漢族에 征服吸收되고 말았다 中國속의 東夷는 大體로 이러한 經路를 밟았지만 그 外의 東夷는 即 韓族과 같은 것은 非華夏系이었다는 것을 主張하여 그 理由로는 山東半島에 支石墓가 있다는 事實이다.

支石墓는 遼東半島 南滿洲 韓半島 등지에서 보이며 이 地域들의 同一文化圈 속에 屬하여 있었다는 좋은 證據가 된다. 이와 아울러 檀君神話와 內容이 비슷한 그림이 山東省嘉祥縣의 武氏祠堂壁畫에서 發見되었다는 것도 우연의 一致가 아닐 것이다.

또 自由中國 台灣大學教授 林惠祥은 東夷를 廣義와 狹義로 分析하여 狹義의 東夷로 보이는 淮夷 來夷 徐戎 등의 夷가 夫餘 高句麗 등의 貊과 같은 種族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後漢書 東夷傳에서도 中國內의 東夷가 韓半島의 韓族과 關連되어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 文獻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廣範한 東夷系統이 先史古考學에서 말하는 無文土器人일 것이며 人種의 으로는 中國系의 中央蒙古人種 및 先住民이었던 古亞細亞族과 區別되는 北蒙古人種이 었다. 이들은 韓 濊 貊 등으로 불리어졌으며 몇 차례의 民族移動을 繼續하면서 優秀한 金屬文化를 이룩하여 歷史時代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民族構成은 上記와 같은데 本島의 人種構成에는 自然的環境 即 四面의 海洋으로 둘러싸여 있어 人種構成에는 韓半島의 一方的인 流入過程과는 달리 多樣性이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⁶⁾

至今까지 韓半島에서 發見된 遺蹟과 遺物을 中心으로 北方系統의 東夷民族의 移動關係를 推考하였다. 本島에서 나타난 遺蹟과 遺物 등으로 考察할 때 本島의 原住民의 構成은 東夷民族의 一派가 南流하여 三韓地方을 거쳐 本島로 流移한 人種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本島에 流移하게 된 것일까 오늘날 史學者들의 定說로는 人類의 移動經路를 人

6) 韓國史大系(上古) 三珍社, 1973. pp. 28~31.

類發生地에서 三方面으로 流移한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 即 北方으로부터 亞細亞大陸의 沙漠을 거쳐 시베리아 蒙古 中國大陸 그리고 韓半島에 移動하는 줄기이고 들쭉는 崑崙山麓으로부터 黃河와 楊子江 사이를 돌아 所謂 中國大陸中原으로 들어온 코-스이고 最後의 經路는 亞細亞南方의 海邊으로부터 海上을 걸쳐 太平洋群島에까지 뻗치는 코-스이다 本島는 地理的인 位置가 亞細亞大陸의 末端에 位置해 있어 世界航路의 要衝에 該當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히 雜多한 人種이 四方으로 移流하여 와서 原住民과 同化融合하여 本島의 原住民으로 形成하게 된 것이다. 至今으로부터 貳千年前後 本島와 中國과의 交流가 行하여진 時期는 本島의 上古時代에 該當하며 그 理由로서는 當時 中國社會는 秦나라의 治世이며 그네들은 造船과 航海術의 發達로 不老草를 本島에 求했다는 徐市過此의 傳說과 新나라 王莽時代의 貨泉등의 遺物등으로 推測할 수 있다.

本島原住民의 南方海神族에 對한 主張은 南方海神族들의 福建 安南 필립핀 南方諸島 혹은 馬來半島로부터 暖流에 따라 北上하여 琉球半島를 經由하여 對馬島 濟州島 및 三南地方 海岸에 漂着可能性이 濃厚하다는 見解이다.

耽羅人의 血統關係를 本源의으로 推考함에 있어서 一方의으로 純粹한 外來旅으로만 推測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本島에는 新石器時代부터 原住民인 州胡人의 嚴然히 本島에 살고 있었던 事實이다. 그리고 氏族發展過程에서 悠久한 時間이 흐르는 동안 州胡人들의 母體가 分化 分裂하여 高, 良, 夫, 三姓의 始祖인 三乙那의 三大部族社會가 形成된 것이라 하겠다.

또 本島元民의 南方說에 對하여 日本人學者 岩本는 그의 著 上古之統治裏面史에서 本島의 原民은 南方에 定着한 海神族의 一部가 本島를 거쳐 弁韓에 들어가고 他의 一部는 北九州에 들어가 그곳으로부터 對馬島를 經由하여 弁韓에 流移했다. 그리고 海神族은 本島 五島 北九州 對馬島 弁韓等地에 分布하고 있다. 海神族은 漢溪山의 爆發에 依하여 紀元前 全滅했고 그후 三神人의 三乙那가 湧出하여 現在의 島民의 始祖가 된 것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이 日人學者 岩本이 見解는 本島의 遺物 遺蹟등을 細密하게 分析을 하지 않은 主觀的인 見解로서 再考를 必要치 않다. 이 南方說의 見解는 原民에 對한 것이 아니라 州胡人 以後의 本島에 漂到한 南方系統의 一派를 指摘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州胡人의 人種關係는 東夷民族의 一派로서 滿洲地方을 거쳐 韓半島을 經由하여 本島에 流移定着한 人種이라 하겠다.

IV 州 胡 人

本島에 關한 記錄이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三國志魏志東夷傳 韓條末尾에 실은 記錄이다. 이

文獻은 陳壽란 사람의 撰이요 陳壽는 中國 晉나라 惠帝7年 西紀 297년에 死亡하고 있어서 濟州島에 關한 記錄으로서는 가장 오랜 단하나밖에 없는 文獻이다. 이 文獻에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 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 始鮮卑 但衣革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乘船往來市賣中韓⁷⁾이라 記錄되어 있고 또 後漢書의 記錄에는 「馬韓之西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 衣革 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⁸⁾」에서 後漢書의 記錄은 陳壽의 三國志魏志東夷傳 韓條의 記錄을 引用한 것 같고 但 貨市韓中의 差가 있다. 後漢書는 西紀450年 頃 南北朝時代 宋나라의 范曄가 著述하고 있기 때문에 陳壽이 書보다 約150年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州胡는 濟州島 即 耽羅를 指稱한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後漢書의 記錄에 州胡國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 記錄中 몇 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人種의 體小한 것과 鮮卑族같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과 言語가 馬韓과 不同하다는 點이다. 여기에서 故 金泰能은 濟州島略史에서 州胡人 特徵인 體軀와 習俗등을 中心으로 풀이를 하여 下衣를 입지 아니한 點이나 머리를 짧게 한 點은 그들의 生業上 活動의 便宜에서 이루어진 習俗인 것이니 이는 海洋을 生活舞台로 하는 漁採人의 風俗인 듯하다고 했으며 그들은 島嶼族系統으로 北九州地方에 살았다는 小人고루 보구族과 同一한 種族이라 하며 州胡人은 九州方面에서 流移한 高루보구 系統의 島嶼民이나 아닌가고 指摘하고 있고 또 九州地方의 西部와 本島는 百餘哩의 바다를 隔하고 東西에 이웃해 있는 地方이요 海路上으로는 그리 먼 곳도 아니며 風向上으로도 船舶의 往來에 便利한 곳이다. 그러므로 遠古時代에 高루보구人이 本島에 往來하였고 또 그 一部는 이곳에 定着하여 他地方에서 온 流移民과 더불어 雜居하면서 이 地方의 原民이 되었다고 指摘하고 있다.⁹⁾ 그리고 本島內에 地名과 方言中에는 아이누語와 類似한 것이 多小 있음을 發見할 수 있으니 噴火口를 소 西方을 모시리포구라하고 酋長인 乙名 옷데나와 愛稱辭인 加伊奈 등은 乙那와 恰似한 點이 있으며 또 故 崔南善이 見解를 引用하여 本島地名과 方言中에는 아이누語가 많이 섞여 있다고 主張하고 있어 이런 點들로 미루어 보아도 아이누以前의 日本先民 高루보구人의 本島에도 居住한 것이 아닌가 記述하고 있다. 이 見解에 對하여 李丙燾博士는 다른 見解를 主張하고 있다. 即 三國志魏志東夷傳 韓條의 記錄은 비록 簡單하나 研究를 要할 자못 재미 있는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고 하였다. 馬韓西南海中 大島라면 至今의 濟州島 即 耽羅를 指稱한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이른바 州胡는 地名이나 國名이라기 보다 어떤 人種에 대한 稱呼로 보아야 하겠다. 그곳 原住民社會의 體制(渠帥 邑落)에 對해서는 一言半句가 없고 오직 州胡

7) 支那史料抄 景仁文化社, 1976, p. 39.

8) 前揭書 p. 23.

9) 濟州年鑑 濟州年鑑社, 1969, pp. 138~139.

에 關한 體格 言語 其他 生活樣式만을 적은 것을 보면 原住民社會의 어떤 特殊集團에 對한 稱呼가 아닌가 推察한다고 했다. 州胡의 言語가 韓人과 같지 않고 體格이 短小하고 滿洲方面의 鮮卑族과 같이 머리를 깎고 있었다는 點에서 어떤 이들은 鮮卑族의 一派가 南下하여 거기에 居住하였던 것이 아닌가 疑心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內陸地方에 있는 民族이 集團的으로 밀고 먼 海路를 通하여 本島까지 南下移住하였다는 것이 잘 納得되지 않는다. 言語가 韓人과 다르고 身體가 短小하다는 點으로 보면 北方人種보다도 도리어 海洋方面의 人種 特히 倭人의 漂流者 또는 捕虜集團을 보고 말한것이 아닌가 그러면 削髮은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 하는 疑問이 생길 것이다. 우리 東方古俗에는 外敵의 侵入者나 捕虜에 對해서는 일부러 머리를 깎아 有標케 하고 奴隸와 같이 부리는 法俗이 있다.¹⁰⁾ 辰韓右渠帥 廉斯鍾史 話가 三國志魏志東夷傳 韓條의 記錄에 依하면

「至王莽地皇時 廉斯鍾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間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 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隸三年矣」以下省略¹¹⁾

即 不法侵入者에 對하여 原住民과 區別하기 위하여 斷髮시켜 奴隸로 삼고 使役에 從事케 하였던 것이다. 이런 法俗은 三韓時代 뿐만 아니라 高麗時代의 在家和尚 近朝鮮時代의 在家僧集團의 그러한 類에 屬한다. 그러므로 州胡란 것은 原主民社會 全體에 對한 呼稱이 아니라 그 地域內의 抑留集團民들에 對한 特殊稱呼인데 記錄者인 陳壽가 잘못 알고 原住民社會와 混同視한 것이라고 推察하고 있다. 그리고 州胡란 이름 自體도 漢人에 依하여 命名된 것으로 혹시 州邑에 屬한 胡人(蠻人)이란 뜻이 아닌가 라고 指摘하면서 이 州胡들의 生活樣式은 削髮以外에는 原住民社會의 그것을 많이 따랐던 모양이다.

위에는 가죽옷을 입고 아래에는 옷이 없어 거이 裸體나 다름이 없다고 하였는데 上衣의 가죽옷은 從來 本島人의 가죽옷인 감태를 말한 것 같고 下衣가 없다는 것은 아랫도리의 짧은 잠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表現한 것이라 보아야 하겠다. 또 소와 돼지 등 家畜 기르기를 좋아하였다는 것도 本島人의 古來로 부터의 生活樣式이었다고 敘述하고 있다.

이 州胡人과 土着原住民과의 關聯性을 明確하게 確定지우기는 어려우나 本島에 人類의 來往이 始作한 것은 수많은 自然洞窟의 存在로 보아 舊石器時代에 소급할 수도 있으나 至今까지 發見된 遺物과 遺蹟으로 考察할 때 本島의 原住民의 祖上들은 大概 新石器時代로 부터 來住하기

10)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297.

11) 支那史料抄 景仁文化社, 1976, p. 37.

始作한 것이 틀림 없다. 그 理由로서는 가장 오래된 出土物로는 櫛文土器破片 및 打製石器를 비롯하여 無文土器破片 石斧破片 有孔單刀 磨製石刀 石製發火器 磨製石斧 등이 나오므로 遺蹟으로는 各處의 支石墓가 散在해있는 데 그중에도 涯月面의 五, 六個 支石墓는 所謂 南方式 돌멘의 樣相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遺物 遺蹟의 樣式이 大概 韓半島의 內陸地方 것과 類似的인 關係를 가진 것이라든지 또 地理의 關係로 보아 原住民의 祖上들은 主로 韓半島 特히 南韓地方에서 移住해 온 것이다.

이밖에 神話 傳說로 보더라도 本島의 三姓始祖說話가 新羅의 朴昔金 三姓始祖의 그것과 一脈相通한 點이 있고 本島의 說話는 地神族說임에 對하여 新羅의 說話는 卵生說이란 差異가 있을 뿐이고 또 本島의 三姓說話에 三姓人의 各 族을 쓰아 所居地를 定한바 高乙那의 居地는 第一都 良乙那의 居地는 第二都 夫乙那의 居地는 第三都라 하였다.

여기에서 都는 古邑誌에는 徒로 되어있어 이것이 바로 辰韓의 徒 新羅의 喙(돌) 加耶의 刀(我刀, 汝刀, 彼刀)와 같이 두레 도리의 對譯語로서 共同集團體의 뜻이니 至今도 本島에는 一徒 二徒 三徒 등이 地區名稱이 남아있다.¹²⁾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本島의 原住民의 人種關係는 北方民族이 韓半島를 거쳐 流移한 遺民들임은 틀림 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요컨대 三國志魏志東夷傳 韓條에 記錄되어 있는 州胡人은 上述한 原住民系統과는 전혀 다른 外族의 捕虜 또는 漂流民集團으로 原住民社會에 隸屬되어 生産供給에 從事했던 무리라고 解釋되어야 한다.

1928년에 本島山地港 築港時에 附近溶岩下 洞窟內에서 五銖錢 王莽의 貨布 大泉五十 貨泉 漢鏡 銅釵 土器 石斧 등의 一括遺物이 發見되었다. 이러한 物件을 使用하던 時代는 西紀前後이며 이때 本島原住民들은 벌써 南韓地方을 通하여 金屬文明의 影響을 받고 있었음은 勿論이거니와 特히 王莽의 貨泉과 漢鏡 등은 內陸과의 交易에서 輸入되었던 것이고 魏志東夷傳에 乘船往來市 賈中韓이라 한 것도 實相 原住民社會와 中韓 特히 馬韓과의 交易의 盛行하였음을 證明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V 濟州島의 開闢과 三姓說話

東西古今을 通하여 어느나라 歷史를 莫論하고 開闢에 關하여 그 民族 혹은 種族의 成立 由來에 對하여 神話說話로 始作하지 않은것이 거의없다. 特히 開闢始祖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神異한

12) 李丙熙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299.

科學的으로 分析하기 어려운 說話가 따르기 마련이다. 本島의 開闢祖說話도 이런 形態를 踏承하고 있다. 韓國史에 있어서 開國始祖의 由來及出生에 關한 說話를 分析하면 다섯가지 形態로 分類할 수 있다.

即 天神族說(桓雄說話 北夫餘解慕 漱傳說) 地神族說(濟州島의 三姓說話 西述聖母說話) 天神地神族說(檀君說話 大伽耶 始祖說話) 外來說(箕子東來說 昔脫解傳說) 卵生說(高句麗始祖朱蒙 新羅始祖朴赫居世 昔脫解 閔智 金海金氏始祖 首靈王)

以上 다섯가지 形態에 따르면, 本島의 三姓說話는 第二形態인 地神族에 屬하며 三姓人의 配匹者인 三神女에 關한 것은 第四形態인 外來說에 屬하고 있는 것이다. 本島의 三姓始祖說話에 關한 文獻으로 가장오랜 歷史資料는 「瀛洲誌」로서 著者나 著作年代는 確實치 않으나 다만 本文獻이 單行本이 아니다 朝鮮太宗16年 西紀 1416년에 鄭以吾가 지은 「星主高氏傳」과 世宗32年 西紀 1450년에 高得宗이 지은 「序世文」과 其他 「高氏世譜」등에 點綴되고 있다.

이것으로 考察할때 高麗末葉 혹은 朝鮮朝初期의 著作으로 보아진다. 「瀛洲誌」의 內容으로는 耽羅의 開闢說話를 比較的 仔細하게 敘述하고 있으며 高厚 高淸 高季등의 新羅에 入朝한 것과 聃王時 百濟東城王에 臣事한 事實 그리고 高麗太祖때 高自堅王이 太子末老를 보내어 星主 王子爵을 받은 史實과 高維가 처음으로 高麗朝에 仕宦하였다는 것 등을 字數 626字속에 簡略하게 收錄되어있다.

그러므로 後日에 刊行된 三姓神話에 關한 記錄 등은 全部가 이 「瀛洲誌」의 記錄을 引用하거나 改筆하여 傳하여 지고있는 것이다.

三姓出現過程을 「瀛洲誌」에 依하여 內容을 살펴보면

「瀛洲太初 無人物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出 嶺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裕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華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 欲留而不去 三人降臨 就開則 內有玉函 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 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犢 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 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 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 歲餘頃者 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頂則 紫氣連空 瑞色葱蘢 中有絕岳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宜用伉儷之禮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至十五世孫 厚清季三昆季 造船渡海 朝于新羅 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異國人來朝之象也 已而耽羅王來朝新羅 王喜曰 曠以不德遠 得貴客不亦悅乎 以厚爲星主 以清令出袴下 愛如己子 名曰王子東宮 季爲徒內 改耽羅爲南化國 各賜衣冠寶蓋 親送南道車騎輜 重大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 世受其職 以修藩臣之禮 至厚十二世孫 聘服事百濟 聘卒後曠世不朝 百濟東城王庚申以耽羅 不修朝貢 發怒與師率四千騎 親正南塞至武珍州 耽羅王 昭聞之遣使 乞罪乃止其兵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 耽羅王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仍賜星主 王子 爵自後世一朝見而 未有蒞仕王國者 至維始仕焉

이것이 「瀛洲誌」記錄의 全部이다.¹³⁾

以上 「瀛洲誌」의 記錄은 耽羅의 社會의 形成과 發展過程을 說明하여 주는 좋은 文獻이라 할 수 있다. 卽 耽羅에 있어서 人種 氏族 結婚 住居 狩獵 農業 牧畜등 많은 人文現象의 起源을 整然하게 說明하고 있는 說話라 할 수 있다.

또 鄭以棼가 永樂14年 丙申秋七月 (西紀 1416年)에 東文選에 星主高氏家傳의 記錄에 依하면 「耽羅之境 初未嘗有人 其山奇峻曰漢拏 宛在雲海渺茫之上降其神靈和氣 化生神人于山之北 毛興穴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卽高氏與祖也¹⁴⁾」란 記錄이 있다.

三姓說話의 內容을 檢討하건데 첫째 湧出에 關한 것인데 이것은 漢拏山의 恒常活火山으로 噴火를 繼續하다가 火山活動의 멈춘후 火山噴出의 慘變으로부터 生存한 州胡人의 一部가 洞窟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神秘스럽게 表現한 것이요 三姓人의 出現過程에서 長次의 序列은 後世部族 社會의 形成期에 韓半島의 百濟및 新羅로부터 中國文化의 輸入에 依하여 其當時의 得勢氏族의 序列을 차례로 列學한 것이라 하겠다.

李殷相의 說에 依하면 高乙那是 KALNE 良乙那是 ALNE 夫乙那是 BALNE라 稱하여 KAL AL BAL는 神聖 先明 統禦의 뜻이라 하며 NE는 人格을 表示하는 것으로 KALNE는 KAL區域 卽 第二都에 居住하는 氏族 ALNE는 AL區域 卽 第一都에 居住하는 氏族 BALNE는 BAL區域 卽 第三都에 居住하는 氏族이라 하였고 各區域의 統治者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⁵⁾

鄭以棼의 東文選 星主高氏家傳에 依하면 同時湧出이라는 記錄을 볼때 처음부터 長次의 名稱은 없는 것 같아 高良夫의 三姓은 후에 中國唐의 文化에 依하여 얻어진 後世의 人 姓氏이고 最初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三姓人의 初期의 皮衣肉食의 記事로 볼때 純粹한 狩獵生活을 營爲하였고 狩獵時代의 世界人類의 安息處인 住居는 洞窟이라는 點에서 볼 때 三姓人의 生活安住地는 洞窟이라고 하겠다. 이런 生活이 繼續되는 가운데 人智가 漸次 發達하기 始作하여 갈 무렵 東海바

13)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p.2~4.

14) 高氏世錄 高氏中央宗門會, 1973, p.781.

15) 韓東龜 濟州島 國壽刊行會, 1975, p.135.

다로부터 浮來한 木函을 얻게되어 開函과 同時에 使者와 青衣三神女을 얻는 記事는 여러가지 疑問을 던져준다.

即 三姓人의 由來에 對하여 中國 秦나라 始皇帝二十六年 西紀前221年 徐氏가 三神山에 不死藥을 採集하러 왔다가 歸路三人의 殘留者가 있어서 그 殘留者를 위하여 三神女를 本島에 보낸 것이라는 說이었다. 이것은 本島의 三姓人을 中國의 歷史와 結付시키려는 一種의 附會에 지나지 않는다. 徐氏에 關한 記錄은 稀小하다 徐氏가 日本에 가서 神武天皇이 되었다는 說話는 申菁川의 海遊錄 가운데 兩森東과의 問答을 통해 말하고 있다.

「問紀伊州 徐市塚 徐福祠 福等入海 在秦皇燔書之前 故世傳 日本有古文 眞本云云 至今數千年 其書不出於天下何也 東曰此總悠悠 歐陽子亦所言 然皆不近理 夫聖賢經傳 自至天地之間至寶 鬼神之所不能秘故古文尚書 或出於魯壁 或見於舫頭 日本雖遠在海中 自有不得不出之理 日本心好夸耀 若有先聖遺蹟 獨藏於此 而可作千萬世奇貨 則雖別立邦禁 當不能過其轉賣 況初非設禁者乎 徐福入海之後 莫知所向 世之好事者 仍言福之子孫 至今爲倭皇五百童 男童女 各爲氏族 始有倭國 比乃無稽之言 夫開關以來 有土斯有人 有人斯有君長 倭地並合諸島 殆數千里 佳山麗水膏壤沃野 百穀豐焉 萬寶生焉 此豈待秦時而有人 待徐福而有君耶 徐福父子 本以方外異人 見海中可居之地 而爲避秦之計 以採藥之說 得樓船而去 其時中國不知有倭地 地之饒樂如此 福之居於日本 死於日本 似爲可居而 其爲子孫及五百男女遺種 皆易其姓 遠而無徵」¹⁶⁾

이 記錄에 依하면 徐氏와 徐福은 父子間처럼 되어 있으나 史記의 註釋에 依하면 徐氏와 徐福은 同一人임을 알 수 있고 이는 訛傳된 說話라 하겠다.

史記 秦始皇本紀二十八年條에 「既已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 方大瀛洲 仙人居之 請得齋戒 與童男女求之 於是 遣徐市發 童男女數千人 入海求仙人¹⁷⁾의 脚註에 秦始皇使徐福이라 하였음을 보아 徐市가 곧 徐福과 同一임을 알 수 있다.

徐市說話는 우리나라 南海岸 各地에 널리 퍼져있으며 釜山地方에서도 過去에 門峴고개에 徐市過此란 碑石이 세워졌으며 釜山市內만해도 東萊의 古號를 蓬萊라고도하고 瀛州洞이란 洞名도 瀛州에서 起因했으며 蓬萊와 瀛州는 다같이 三神山의 蓬萊 方大 瀛州에서 딴 이름이라 하겠다 本島에도 이러한 徐市說話가 傳해져서 三姓人의 出現과 關聯시켜 나타난 것으로서 本島의 三姓說話와는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徐市一行의 韓半島나 本島에 殘留하여 生存한 記錄도 全然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徐市一行中 三人이 殘留하여 三姓人이 된 記錄

16) 釜山市誌 釜山市史 編纂委員會, 1974, p. 300.

17) 前揭書, p. 300.

은 史實이 全然 없는 無根한 推理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檢討를 要할 것은 射矢卜地에 關한 것이다.

우리 民族史에서 弓矢에 關한 說話는 夫餘 高句麗의 朱蒙說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으로 弓矢는 遊牧狩獵民의 生活手段이므로 大概 北方大陸民들의 說話이다. 이 弓矢에 對한 이야기가 本島三姓人의 出現說話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本島民의 構成에 對해 暗示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即 本島의 人種問題를 究明하는 데 前述한 바와 같이 本島原住民은 東夷民族인 高句麗系統의 一派라 할 수 있는 證據가 射矢卜地에 依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高句麗는 始初五部族으로 形成되고 있으며 消奴部(西部) 順奴部(東部) 絶奴部(北部) 灌奴部(南部) 桂婁部(中部) 등 許多한 氏族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當時의 國王을 消奴部에서 選出되었고 후에 桂婁部에서 選出된 것인데 史家인 申采浩는 高句麗의 五部の 名稱은 吏讀表記라 하면서 東部는(Sunna) 南部는(Bulna) 西部는(Yolna) 北部는(Julna) 中部는(Kaura)라 하였다.¹⁸⁾ 이 高句麗의 名稱에 準據하면 本島의 中部 高乙那의 居住地인 一徒는 Kaura 良乙那의 居住地인 二徒는(Yalna) 夫乙那의 居住地인 三徒는 (Bulna)에 該當하는 것으로써 이 三者의 呼稱間에는 高句麗의 五部名과 어떤 關聯性이 存在한다고 推考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立場에서 考察할 때 本島를 支配한 高良夫 三姓氏族群은 高句麗系統 혹은 夫餘系統인 東夷民族인 一派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生活 및 習俗上으로 보아도 本島의 養豚方法의 平壤北道 및 中國과 類似하며 家屋의 形態도 唐書의 記錄을 보면 夏節에는 草屋에 살고 冬節에는 窟室에서 산다는 本島의 原住民의 住居 形態가 晉書의 肅慎民의 記錄에 夏則草居 冬則穴處의 形態와 類似한 點을 볼 때 本島의 原住民을 東夷民族의 一派라고 主張할 수 있는 것이다.

VI 三姓序列에 대한 問題

古代以來로 高良夫三姓의 序列은 文獻 혹은 傳說에 依하여 高良夫 혹은 良高夫 乃至 高夫良 등으로 傳해져 高氏門中과 良氏(梁氏) 門中사이에는 序列에 對하여 論爭이 되어왔다. 이에 文獻을 通하여 推考하려 한다. 至今까지 三姓에 對한 文獻은 許多하다. 그 文獻을 列擧하면

18) 申采浩 朝鮮上古史 東西文庫, 1977, p.175.

- 「瀛洲誌」 著者未詳 高麗末葉
 「東文選」 大提學鄭以吾 太宗16年 西紀 1416年
 「高氏譜」 大提學高得宗 世宗32年 西紀 1450年
 「靈谷遺稿」 大提學高得宗 世宗32年 西紀 1450年
 「高麗史」 鄭麟趾 文宗元年 西紀 1451年
 「高麗史 地理志」 梁誠之 文宗元年 西紀 1451年
 「高麗史節要」 大提學 金宗瑞 文宗元年 西紀 1451年
 「世宗實錄地理志」 鄭麟趾 端宗 二年 西紀 1454年
 「東國通鑑」 大提學徐居正外 成宗十五年 西紀 1484年
 「風土錄」 金淨 中宗十六年 西紀 1521年
 「東國輿地勝覽」 大提學 李荇外 中宗二十五年 西紀 1530年
 「南槎錄」 金尚憲 宣祖三十四年 西紀 1601年
 「芝峰類說」 大司諫 李晬光 光海五年 西紀 1613年
 「三朝受教」 左副承旨 俞大健 光海九年 西紀 1617年
 「耽羅志」 牧使 李元鎮 孝宗四年 西紀 1653年
 「濟州風土記」 李健 孝宗八年 西紀 1657年
 「濟州請祠典變通狀」 牧使 李衡祥 肅宗二十八年 西紀 1702年
 「南宮博物記」 牧使李衡祥 肅宗二十八年 西紀 1702年
 「擇里誌」 李重換 肅宗四十年 西紀 1714年
 「高氏世譜」 大司成 李眞望 景宗四年 西紀 1724年
 「增補 文獻備考」 奎章閣 英祖四十五年 西紀 1770年
 「三姓廟記」 牧使梁世絢 英祖四十九年 西紀 1774年
 「三姓祠賜額 後節目」 禮官高宅謙 正祖九年 西紀 1785年
 「賜額文」 正祖 正祖九年 西紀 1785年
 「耳溪集」 大提學 洪良浩 純祖元年 西紀 1801年
 「完文」 牧使 李顯宅 純祖九年 西紀 1809年
 「清選考」 奎章閣 朝鮮朝末期 西紀 1900年頃
 「耽羅紀年」 金錫翼 西紀 1918年

以上の 文獻 以外도 最近까지 나온 文獻을 合치면 近40餘種이 있으나 文獻의 出刊된 年代順으로 보아 역시 瀛洲誌가 第一오래고 다음으로 東文選이다. 文獻의 內容에 있어서 大同小異하나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의 順位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그리고 長曰高乙那 次曰夫乙那 三曰良乙那의 順位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歷史考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歷史資料의 文獻學的考證인 바 우리 濟州島의 三姓에 關한 資料로서 제일먼저 傳해지고 있는 것은 高麗末葉에 나타난 「瀛洲誌」라 하겠다.

이 文獻이 單行本이건 아니건간에 現存하는 資料로서는 最古의 文獻인 故로 이 資料에 依하여 三姓人關係는 考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氏族의 族譜制度는 金斗憲博士의 「韓國家族制度研究」에 依하면 韓國의 族譜制度는 高麗中葉에 中國으로부터 들어왔으며 一部 巨門閥族들 中에는 筆寫本으로 傳하다가 朝鮮朝 初期에 木版印刷本이 나오기 始作했으며 現在 傳하는 族譜들은 朝鮮朝中葉에 印刷된 것이 오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島出身들의 高麗後末에 顯官高爵의 輩出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高良夫三姓의 族譜關係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文獻에서 高良夫順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이 15種以上이고 高夫良의 順位로 擧論된 것이 七種이고 「高麗史」「東國通鑑」 등에 依하여 良高夫로 된 것은 梁氏族譜에 依하면 10種으로 되어있다. 資料上으로 볼 때 長爲良說은 高麗史에 記錄된 것이 始初라 하거니와 「高麗史」 耽羅縣條에 依하면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聳出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云云¹⁹⁾ 以下省略과 같이 記錄됨으로 長爲良說이 나타난 것이다.

이 記錄은 朝鮮朝 文宗元年 1451年 鄭麟趾 梁誠之 등 32人의 分擔執筆한 것인데 여기에 古記云云의 古記는 무엇을 뜻하는가 筆者는 이 古記가 바로 「瀛洲誌」가 아닌가 推測하거니와 特히 大提學鄭이棼의 東文選보다 35年後에 「高麗史」가 刊行된 것으로 봐서 高麗史에 있어서의 古記云云은 「瀛洲誌」가 아니면 「東文選」이라 생각하거니와 또 이 當時 「梁氏族譜」도 나타난 것으로 봐서 梁誠之가 修史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耽羅縣의 條項을 專擔하면서 梁氏祖를 먼저 記錄했기 때문에 생긴 說이라 하겠다. 其後 徐居正의 「東國通鑑」을 만들때 「高麗史」의 耽羅縣의 條項을 그대로 引用記載하였기 때문에 長爲良說의 梁氏側에서는 그대로 믿고 오늘에 와서 高氏門中과 梁氏門中 사이에 論爭이 나타난 것이라 하겠고 또 英祖47年 西紀 1771年 濟州牧使로 赴任한 梁世絢이 懸版을 良高夫로 달아 놓은데서 비롯된 것도 같아 또 英祖四十八年 西紀 1772年에 牧使梁世絢이 三姓廟記가 高氏門中과 論爭의 始發點이 된 것이라 하겠다. 其 內容을 살펴보면

「餘以乙那之後로 按節茲土하여 上官訖에 首謁三姓廟하고 因省毛興壇 古跡하니 其廟宇壇壝이 年久壞缺하고 亨祀儀節이 亦殫葬이라 窈不勝其慨然也로다. 惟我三姓이 首出庶民하여 扃開三徒에 名顯史策이요 德施海國에 子孫蔭祿 不爲不蕃而崇奉之典의 若是其踰略하니 此豈報 本之道乎아 不揆僭妄하고 整其謬禮而屋壇 壇壝之傾圮者를 隨力修葺하고 增置守直人하여 作爲節目하고 錄在下方하야 永久遵行焉 하노라. 記曰 樂은 樂其所自生하고 禮는 不忘其本이라하니 此雖於達禮樂之本에 不敢妄議이나 亦可以

小伸追遠之誠云—梁高先後之稱은 國乘稗史에 其言不一而蓋多以良爲長이라 高判尹得宗所記世譜도 亦曰長曰良次曰高 則良之爲長이 雖以高氏로도 不敢諱也라 但以射石定都 高爲君之說而有多小爭論耳나 文獻이 無徵하니 此亦難信而設如其言이라도 今此祠亭與歷代帝王廟體面不同이요 以一島生民之始而爲 後人報功之地 則良氏爲長이라 奉安首位가 斷然無疑而 唯是分徒次第事蹟도 難明하니 既不得十分的證 而直以 長次之序硬定 一二徒誠有所不敢安者라 事神之道는 誠實爲貴어늘 若一差誤則名實倒着하야 違 禮甚矣이라 神豈肯享之哉리요 念之及此에 寧不悚然가 大抵三姓을 一體壇祀之하고 通用一祝이 極有 微意이라 自辛卯秋亨으로 去各祝一二徒之稱하고 依壇祀禮하야 通用祝事」以下省略²⁰⁾

梁世絢牧使의 三姓廟記中 問題되는 條項은 高判尹得宗所記世譜亦曰 長曰良 次日高則良之爲長 雖以高氏 不敢諱也라 하였으나 西紀1450年 世宗 32年 庚午正月元日 三姓廟記보다 約 323年前에 高得宗謹撰한 序世文에는 分明히 「毛興穴 三人之出 正當九韓之時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라고 記錄 되어있다.²¹⁾

이는 高得宗이 世譜의 序世文을 지은 지 323年後에 良乙那後裔인 梁世絢이 濟州牧使로 在任 時 自己祖上을 높이 받들고자 高得宗의 序世文을 訛傳曲筆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또 雖以高氏 不敢諱也라 強調한 글귀는 梁世絢牧使가 三姓廟記를 지을 當時에도 高氏가 長으로 世傳되어 왔 다는 것을 스스로 立證한 文脈으로 解釋된다.

다음으로 問題되는 關鍵은 「但以射石定都 高爲君之說 而有多小爭論耳 文獻無徵이란 것이다. 高良夫 三神人의 활를 쏘아 長次를 定하였다 하는 史實은 史冊과 三射石의 遺蹟이 現在하고 있 으며 梁氏族譜에도 三射石의 遺蹟이 所在를 明記하여 在州東十里 世傳三神人 卜地定都時所射石 至今族痕尙存 而州人梁宗昌 作石室而藏之建碑 其傍盧峰金倣 銘曰毛興穴 古矢射石 留神人遺蹟 交映千秋」²²⁾이라고 記載되고 있다. 이렇게 記錄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文獻에 根據할 수 없 다고 하여 上史의 史實을 否定하는 態度를 取하였으니 이것은 梁牧使가 先祖를 長으로 모시려는 衷情에서 비롯된 曲筆이라 아니할 수 없다. 特히 三射石關係는 梁牧使보다 39年前 英祖11年에 濟州牧使로 赴任한 金倣牧使가 認定하여 一筆을 加한 것을 볼 때 梁牧使의 文獻無徵이라 함은 妥當치 않다.

세째번 問題되는 關鍵은 爲後人報功之地 則良氏爲長 奉安首位 政然無疑而라는 點이다. 이것 으로 볼 때 梁牧使의 先祖에 對한 崇祖觀念은 大端한 것 같아 高爲長 高爲君이란 記錄이 있는 御製文 歷代牧使의 上疏文 等 許多한 文獻을 목살하고 良爲長을 主張하여 先祖를 으뜸으로 奉 安하고 싶은 過剩衷情에서 비롯된 曲筆이라 하겠다.

20) 濟州梁氏族譜 千戶公派 博文社, 1968, p. 148.

21) 高氏世錄 高氏中央宗門會, 1973, p. 769.

22) 濟州梁氏族譜 千戶公派 博文社, 1968, p. 132.

또 光海君九年 丁巳 西紀 1617년에 記錄된 三廟受教의 內容을 보면 高氏族譜에는 첫머리가 「太祖大王 太宗大王 兩朝傳教內 高厚高濤 乃是神人之後裔也 其後子 孫代雖玄遠 東西正職不次擢用云」²³⁾ 以下省略 이라고 되어있고 梁氏族譜에는 「太祖 太宗兩朝傳教內 良高夫三乙那 乃是天降 之神人也 且其後裔高厚高濤 梁宕具 名賢歸義之人也 其後子孫代雖遠 東西正職不次擢用云」²⁴⁾ 以下省略 이라고 되어있어 역시 高氏族譜와 梁氏族譜 사이에 相異한 記錄이 있음은 上述한 바와 같이 先祖의 崇祖觀念에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VII 濟州島의 古代名稱에 대하여

濟州島의 古代名稱은 中國側史書에 여러가지 名稱으로 呼稱되고 있으며 또 韓國側文獻과 日本側文獻에도 여러 種類의 名稱으로 나타나고 있다.

耽羅紀年外書에 依하면

「耽羅國名 本九夷之一 亦曰九韓之一 在禹貢揚州之東 渤海之中 幅圓五百餘里 今朝鮮全羅道濟州島 卽其地也 在昔時或稱 島夷 史記禹定九州 各以其職來貢 至于荒服 北撫 山戎發 息慎 東夷 島夷 咸戴 帝舜之功 按正義 島夷或作島夷 指百濟西南海中諸島 以爲島夷 卽耽羅也

尚書揚州島夷 卉服 按括地志云 百濟國西南 渤海中有大島十五所 皆有邑落人居 屬百濟 此皆揚州之 東島夷也

按史記正義 東南之夷 草服葛越蕉竹之屬 越卽芋屬也 或稱東瀛洲

史記 瀛州在渤海中 按東國世紀 以金剛 爲蓬萊 智異爲方丈 漢拏爲瀛州 而日本人以富士山爲瀛州 不可信也

或稱州胡國 後漢書 馬韓之西南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衣韋 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按州胡國 疑卽耽羅也

或稱涉羅 後魏書正始中 世祖引見高句麗 使芮悉弗 悉弗曰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今扶余爲勿吉 靺鞨所逐 涉羅爲百濟所并 或稱耽牟羅 隋書 百濟南海行三日 有耽牟羅 南北百余里 東西數百里 土多鹿 附庸百濟 按耽是耽之訛 隋書又云 煬帝大業四年 遣文林郎 裴世清 使倭國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耽羅 題在大海中

23) 前揭書 高氏世錄, p. 284.

24) 前揭書 梁氏族譜, pp. 139~140.

東史隋既平陳 戰艦一艘 漂至耽羅國 將還道經百濟 王賚送甚厚 仍遣使表賀

或稱僂羅 新唐書高宗龍朔初 有僂羅者 其王儒李都羅 遣使來朝貢方物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樸陋 衣犬豕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耙土 初附百濟 後附新羅 麟德二年 乙丑魯長 來朝從帝至太山

或稱耽浮羅 韓昌黎集 送鄭尚書序 海外諸國 如流求 浮南 耽浮羅之屬 東南際天地 按就是耽之俗字 雲笈書 太上老君 降于 浮羅嶽

或稱毛羅 安弘記 例九韓毛羅居四 宋嘉祐中 蘇州崑山縣上海 有一船桅折風颶抵岸

船中有三十餘人 衣冠如唐人 繫紅鞵角帶短皂布衫見人皆慟哭 言語不可曉 試令書字 亦不可讀 行則相 綴如雁行 久之自出 一書示人 乃唐天授中 告授屯羅島首領 陪戒副尉制 又有一書 乃是上高麗表 亦稱屯 羅島 皆用漢字 蓋東夷之臣屬 高麗者也 船中有諸穀 唯麻子如蓮的 蘇人種之 初歲亦如蓮的 次年漸小 數年後 只如中國麻子 時贊善大夫韓正彥 知蓋崑山縣事 召其人請以酒食 及罷以手捧首 而顯意若權感 正彥使人爲其治棹 棹齧植船木上不可動 工人爲之造轉軸 教其起倒之法 其人又喜 復捧首而罷 夢溪筆談 按天授者 高麗太祖年號 宋人誤以爲則天年號 屯羅以是毛羅之訛也

或稱耽羅 耽羅林邑之南邊海 小國也 耽羅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以耽羅 爲南宋日本要衝 亦注意 焉 蓋隨代而相沿也

高靈谷得宗曰 州處在南海之中 其在昔時 或稱東瀛州 或稱毛羅 或稱耽羅 隨代而 改載史冊可見矣

朴燕巖趾源曰 東國方言 島謂之剡 而國謂之羅羅 耽涉僂三音並與剡相類 蓋云島國也 古記所稱 初泊 耽津朝新羅 故曰耽羅者 則附會之說也²⁵⁾

以上 耽羅紀年外書의 記錄 以外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島名을 分析하건데 字義와 寫音으로 二個의 語彙로 構成된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耽羅란 島名은 字義에 依하여 나타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字義上으로 볼 때 字義에 속하고 있는 것은 島夷 州胡國 東瀛州 등으로 島夷는 古代 中國人 들이 濟州島를 九夷의 하나로 보는데서 나타난 呼稱이며 州胡도 濟州島의 地政學的 面과 島民 의 風俗生活樣式을 土台로 中國人의 漢民族을 除外한 塞外 諸民族을 北狄으로 蔑視하여 本島를 州胡라 呼稱한 것이고 東瀛州도 漢拏山을 三神山의 하나로 看做하여 呼稱한 것이다. 이 以外의 많은 名稱들은 耽羅란 呼稱을 漢字로 寫音한 것이라 하겠다. 耽牟羅 耽浮羅 耽沒羅 食羅島 耽 羅國 등은 三音節로 되고있는 것에 反하여 다른 것들은 二音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浮 沒등을 빼면 耽羅가 된다. 「耽食聃聃」이란 글자는 우리말로는 「TAM」으로 漢字의 終聲은 一定하지만 中國人은 終聲인 M. N을 正確하게 發音하지 않은 데 原因이 있다고 必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普通 固有名詞인 「탐라」「탐나」에 適當한 漢字를 使用한 것이라

25)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p. 341~344.

하겠다.

또 耽羅 食羅 耽牟羅 등은 同名이다. 頭文字인 耽. 儻 涉字은 우리말로 섬을 뜻하며 羅는 國나라 무라를 뜻하는 것이라 했다.

朴燕巖趾源이도 東國의 方言에 剗 耽 涉 儻의 四字는 相似音으로 섬을 뜻한다. 따라서 耽羅는 島國 섬나라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濟州의 古人들은 自己내의 住居하고 있는 섬을 普通 耽牟羅 涉牟羅 섬무라 라고 呼稱하였을 것이요. 이런 呼稱의 中國社會에 알려져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訛音하면서 그네들의 歷史記錄에 그 音에 가장 가까운 글자를 골라 記錄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文獻을 中心으로 濟州島의 島名을 살펴보면, 「三國史記」에 耽牟羅 耽羅 耽羅國, 「東國輿地勝覽」에 耽羅 屯羅 耽毛羅 東瀛州, 「三國遺事」에 托羅 「高麗史」에 屯羅, 「文獻備考」에 屯羅, 「高氏世譜」에 毛羅 南化國 등의 本島의 名稱이 나온다. 耽羅 耽牟羅 등의 名稱에 對하여는 上述한 바이지 만 文獻備考에 本島의 古代名稱은 毛羅이고, 屯羅는 毛羅의 誤記라고 하였으며, 本島는 百濟新羅時代에는 耽羅라 呼稱하고 高麗 肅宗十年에 毛羅를 耽羅로 改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역시 島國 '섬나라'를 뜻하는 名稱이다. 毛羅란 名稱은 어떤 緣由에서 생긴 것일까 이것은 三神人 高良夫 三乙那가 從地湧出한 傳說의 毛與穴地帶에서 湧出한 까닭에 緣由한 것으로써 世宗朝에 漢城府尹 高得宗이 巨木이 茂盛한 毛與穴이 濟州島의 三姓의 始祖의 發祥地라는 認識을 島民들에게 啓導하기 爲하여 지은 名稱이라 하겠다. 그 理由는 毛羅란 島名은 高氏世譜 以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耽羅의 島名의 由來에 對해서 新羅가 三國統一過程에서 百濟를 滅亡시킨 후 耽羅의 島主高厚一行이 新羅에 來朝하였는데 처음 寄着한 곳이 耽津이라하여 耽津의 耽과 新羅의 羅를 따서 耽羅라 하였다한다. 그러나 全南康津의 古名은 冬音縣이고 三國史記에 耽羅國主名은 徒冬音律이다. 冬音 徒冬音은 耽과 같은 借字이며 康津은 옛날부터 濟州島와 韓半島를 往來寄港하는 重要な 港口로서 古名은 本來 本島의 古名에 由來한 이름이며 濟州島의 本名은 本來부터 耽羅인 것이다.

日本의 文獻에 나타난 島名을 考察하건데 日本書紀에 吐火羅 耽羅 都貨羅 都耽羅 度羅 등의 島名이 보인다.

即 繼體 天皇二年 西紀 508年條에 十二月 南海中 耽羅人初通百濟國²⁶⁾

또 孝德天皇五年 西紀649年條에 吐火羅國男二人 女二人 舍衛女一人 被風流來 于日向²⁷⁾

26) 日本書紀(下) 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77. p. 27.

27) 前掲書, p. 323.

○ 또 齊明天皇三年 西紀657年條에 秋七月丁亥朔乙丑 靚貨邏國男二人 女四人 漂泊于筑紫 言臣等 初漂泊于海見嶋²⁸⁾

○ 또 同王六年條에

○ 秋七月庚子朔乙卯 又靚耽羅人 乾豆波斯達阿 欲歸本土 求請送使 曰願後朝於大國 所以留妻爲 表乃與數十人 入于西海之路²⁹⁾

○ 또 續日本紀 聖武天皇天平三年 西紀731年條에 乙亥定 雅樂寮雜樂生員 大唐樂39人 百濟樂26人 高麗樂8人 新羅樂4人 度羅樂62人³⁰⁾

○ 以上 名稱에 있어서 度羅에 對해서는 日本書紀에 耽羅를 말한다. 至今已 濟州이다라 하였다. 日本側史料에 記錄되어 있는 吐火羅 靚貨邏墮羅 都耽羅 度羅는 日本書紀에는 西域國名으로 列學한 것으로 推測되거니와 이 西域國名은 濟州島의 古名과 同一하며 都, 靚度(to) 墮(ta)는 모다 「Ta」에 맞춘 反切借字이고 吐火 貨의 和聲은 日本音 「K」인 것인데 우리나라의 喉內音「h」이다 故로 反切借字의 母韻으로 使用한 것으로 모두가 다「ta」이고 耽羅 毛羅 托羅와 同名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托 毛(tak) 墮(ta)는 終聲을 빼 놓고 부친 것으로 即 다(ta)라(La)이다. 그러므로 墮羅도 濟州島의 古名이라 할 수 있다.

○ 이렇게 島名을 推考하게 될 때 島名이 由來를 耽牟羅로 볼 적에 本島는 돌이 많고 옛날부터 倭人의 往來가 頻繁하였기 때문에 垣, 즉 石耽羅는 ‘무라’ 即 ‘돌담촌’을 表明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것은 너무나 附會할 것이라 하겠거니와 耽牟羅는 어디 까지나 ‘섬나라’라는 名稱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Ⅶ 耽羅國의 成立과 新羅入朝

三姓이 出現하여 毛興穴地帶를 中心으로 所居地를 定하여 第一都 第二都 第三都에 定住하였나 함은 文獻에 記錄된 바와 같거니와 이는 初期의 氏族社會의 形態를 말하여 주는 좋은 記錄이라 생각된다. 三姓氏族들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繁昌하여 産業도 漸次 發展하기 始作하여 氏族部落들이 增加하기 始作한 것이다. 이무렵 三姓間에는 各氏族長들의 協議下에 射矢卜地가 이

28) 前掲書, p. 331.

29) 前掲書, p. 345.

30) 續日本紀 前編, 吉川弘文館, 1976, p. 126.

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氏族의 增加와 生活의 變化는 보다 많은 物資와 勞動力이 必要로 했기 때문에 狹小한 地域인 第一都 第二都 第三都로서는 그 慾求를 充足시킬 수 없으므로 濟州島 全地域을 三分하는 行政的인 區域整理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三氏族長들의 居住地는 그대로 하되 直轄地를 三分하게 되어 耽羅高氏族譜序文 高得宗序世文에 나타나는 第一都是一徒里이니 今濟州요, 第二都是 山方里이니 今大靜이요, 第三都是 土山里이니 今旌義라 하였다.

이 때부터 各氏族間에는 相互間에 緊密한 結束과 紐帶를 強化하면서 各其 管轄地域을 統禦하여 갔다. 그리고 各氏族들의 生活方式는 農耕과 漁撈와 牧畜의 混合性을 띠고 있으며 共同生産 共同分配의 氏族社會의 原則에 依하여 營爲하였었다. 至今까지도 이런 共同生産과 共同分配의 遺風이 行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氏族社會의 生活의 繼續되는 平和境인 이 고장에도 時代的 變遷의 바람이 불어 外敵의 侵入과 外勢의 干涉等 여러가지 問題點을 惹起하게 되어 한 集團의 小數氏族만으로는 이를 防禦하기가 難함으로 各部落의 氏族人들은 攻守同盟이 必要하였고 이를 運營할 組織體도 自然히 必要했던 것이다. 各部落政治는 大氏族政治로 發展하게 되고 氏族長이 이를 統率하게 되었다. 時代的 變遷과 社會의 發展에 隨伴하여 外勢도 漸次 強勢를 보여 各氏族集團은 더 크고 강한 外勢에 對抗하기 위하여 三氏族의 聯合하여 보다 큰 團集 卽 三氏族의 大集團體인 部族社會를 形成하는 過程이 나타난 것이다. 卽 氏族中心의 部落政治社會가 漸次 崩壞되고 三氏族의 共同體인 部族共同社會인 原始國家가 成立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耽羅國의 成立인 것이다.

耽羅의 部族社會의 部族長은 最初에는 氏族長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믿어지며 最初에 選出된 部族長은 高乙那가 된 것같아 瀛州誌 東文選 등 가장 最古의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할 때 長曰高乙那로 되어있다. 그러나 高麗史 東國通鑑 등에는 最初의 部族長은 良乙那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筆者는 射矢卜地의 時期를 最初의 部族國家의 成立段階로 보고 싶다. 왜냐하면 「瀛州誌」에 三神人 各自射石 以試勇力 高氏爲上……中略……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이란 記錄이다.³²⁾

이 語錄은 強力한 權力과 武力을 高氏가 掌握 他的 氏族을 힘에 依하여 屈服시켜 耽羅의 支配權을 掌握한 것이라 推考되기 때문이다.

卽 이런 過程을 通하여 耽羅國에서는 高氏를 中心으로 하는 權力政治 王權專制政治가 始作된 것이며, 高乙那 15代孫 高厚때에는 部族國家의 基礎가 確立되었으므로 高厚一行的 新羅에 入朝

31) 高氏世錄 高氏中央宗門會, 1973, p. 769.

32) 前揭書, p. 769.

하여 內附를 請하고 封爵을 받는 등 對外的인 活動을 始作하였으며 新羅王은 高厚에게 星主 高淸에게 王子 高季에게 都內라는 爵을 주고 國號를 耽羅라고 定하고 高厚를 封冊하였던 것이다.

耽羅가 新羅에 入朝한 時期는 여러 文獻에 新羅의 盛時라고만 傳해지고 있을 뿐 新羅의 몇대 王 몇년이 亂것을 알 수 없다. 新羅의 盛時라 함은 一般的으로 新羅가 三國統一 完了後를 起點으로 約百餘年史를 말한다.

高氏世譜에는 新羅初期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誤謬이다. 史學家金泰能은 新羅의 盛時를 17代 奈勿 王當時로 推定하여 말하되 이때 新羅는 中小諸國을 併合領土를 擴張 中央集權體制로 發展하기 始作한 때이고 또 이때는 高乙那 15代孫 高厚때 까지의 年代를 略算하여 350餘年이 되고 三乙那의 出現을 一世紀後半期로 推定하면 高厚는 西紀410~420年頃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너무 年代와 對外關係를 檢討하지 않은 推測이라 하거니와 奈勿王當時의 新羅의 國勢는 三國中 가장 뒤늦은 發展相이고 이때 新羅는 部族國家로서 出發하려는 時點에 있는 것이다.³³⁾

이 當時 耽羅는 百濟와 公私的 關係가 成立되어 있어 百濟를 통한 新羅에의 入朝는 想像하기 어렵다. 따라서 高厚一行의 新羅入朝 時期는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文武王1年으로부터 15年 사이로 보아야 하겠다. 이 時期를 入朝時期로 본다면 高厚一行의 造船渡海 泊于耽津이란 記事가 妥當하며, 이때는 百濟가 滅亡하고 韓半島는 新羅가 掌握하고 있었기 때문에 耽羅의 使節의 耽津을 經由하여 新羅에 入朝는 容易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33) 濟州年鑑 濟州年鑑社, 1969, p.145.

—Abstract—

The Ancient History of “Tam Ra”

Kim Chong-up

1. This paper is to analyze developmental process of ancient history of “Tam Ra”. Though we can find signs of being of mankind in Old Stone Age, we can not consider them ancestors of Cheju. It is reasonable to investigate from the New Stone Age. We can discover only remains of the New Stone Age scatted about. Therefore we should investigate ancient history of cheju from New Stone Age.
2. The problem of human species composition has many debating issues, but human species composition of che juan was shaped by a faction of aborigines came into che ju island from which a northern district via korean penninsula.
3. The construction of the tales of three family names (三姓) seemed to apply the tales of it in Koguryo and Silla. but because of a lonely island in the far-off sea and influences of an active volcano, Mt Han-la, the tale of the god of the earth appeared. The order relation of Ko (高), Yang (良), Bu (夫) appeared in the coming age, and after establishment of Tam Ra Guk (耽羅國) and appearance of King whose name was Ko(高) order relationship came out.
4. The name of cheju island in ancient times is kept on record as various names. A tale that the name, Tam Ra, was appeared when che ju was absorbed into Sinla, is nothing but a kind of distortion. From the first, the name of che ju island is “Sum Na Ra” “Tam Ra”